

협회행사 보고 ③ : 영국 공공도서관 슬라이드 강연회

봄비가 촉촉하게 내린 4월 18일 오후 빈 채로 겨울을 보낸 우리 협회 IFLA 2006서울대회 준비위원회 회의실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영국 셰필드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영석 선생을 강사로 모신 '영국 공공도서관 슬라이드 강연회'에 참석하신 분들이다. 4월 중순 김영석 선생이 잠시 귀국한 틈을 타서 몇몇 대학에서 같은 주제의 강연회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 협회에서 도서관 사서들을 위해 시간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바쁜 일정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성사된 강연회였다. 이날 약 4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공공도서관 사서들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다수 참석하여 상호 교류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협회가 이번 강연회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우선 2006년 IFLA대회를 유치한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의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작년 IFLA 클래스고 대회에 참석하고 영국 도서관을 일부 견학하기도 했었지만, 실제 영국에서 도서관을 연구하고 있는 강사로부터 깊이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통해 영국 공공도서관 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이 처한 변화와 위기의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선진의 경험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오랜 도서관 역사를 가진 영국의 도서관은 어떻게 도서관이 직면한 사회적 위기 국면을 헤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이날 강연회는 영국의 공공도서관 사정에 대해 현지에서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가 행한 강연이라서 여러 면에서 흥미로웠다. 특히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생생한 경험과 사실을 전해 주었다. 이날 강연자가 강조한 것은 영국의 경우 도서관수는 많지만 대부분이 작은 규모의 분관 수준 도서관이고 그래서 지역에 밀착된 도서관들이라는 점과 도서관 폐관 등 위기 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친구들'을 결성해서 이를 막아낸 점, 사회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을 큰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지역에 밀착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외형적인 규모보다는 도서관의 내용적인 면, 즉 장서나 서비스와 전문인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참가자들로부터의 동감을 얻었다. 또한 '도서관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도서관과 시민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도서관의 친구들'은 미국 등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은 도서관 운영을 돕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지원조직인 반면, 영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도서관이 폐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조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의 강력한 지지세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영국 도서관들이 '친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도서관이 끊임 없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적이고 개혁적 자세로 서비스를 해 온 결과가 아닐까? 도서관은 사회적 기관이고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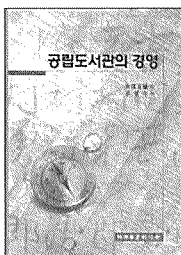
않고서는 결코 존재하거나 성장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도서관들도 다양하고 지역과 주민에 밀착된 서비스 개발과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도서관으로 변모해 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영국의 도서관들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강연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몇몇 지역의 도서관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학교도서관 역할도 겸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비디오를 대여하고 과거나 각종 기념품이나 폐기한 책을 파는 도서관, 커피숍을 가지고 있는 도심 속 공공도서관도 볼 수 있었고, 책을 분류하지 않은 채 이용자들을 만나는 도서관과 홈리스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도서관 등도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은 결국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더 다가가기 위한 도서관측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연회 내내 이번에는 또 어떤 도서관일까 기다려졌다. 기다림 속에 만나는 도서관들은 이념과 목표는 같으면서도 그 실천방식은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 아니었을까 한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우리 도서관 사정을 반영한 여러 질문들이 있었다. 도서관의 영리활동에

따른 이익금의 활용문제, 사서채용 문제 등 여러 질문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영국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지 못해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강연회를 통해 영국의 도서관 사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도서관의 변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협회로서도 2006년 IFLA서울대회를 앞두고 우리 도서관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이와 같은 해외 도서관 사정에 대한 강연회를 자주 개최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비가 오는 속에서도 먼 지방에서도 참석한 현장 도서관인들의 열기로 인해 강연회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김영석 선생은 평소에도 우리 도서관인들과 인터넷을 통해 자주 만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받는다. 세상을 이해하는 일은 나를 이해하고 나 자신의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이번 영국 도서관에 대한 강연이 우리 도서관계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글 : 이용훈 기획부장, blackmt@hitel.net)

신 간

공립도서관의 경영



신국판/237쪽
ISBN 89-7678-062-0
정가 11,000원
회원보급가 8,800원

大澤正雄 著
류현숙 역

특 차

- 공립도서관의 업무
- 도서관의 자유
- 도서관 서비스
- 자료의 관리
- 도서관 인사관리
- 도서관의 행정과 재정
- 시설관리와 운영
- 도서관을 개관한다
- 도서관을 받쳐주는 힘
- 도서관 관련 단체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w3master@korla.or.kr